



# 'MVP 경쟁' 투수 4관왕 폰세 vs 홈런왕 디아즈, 가을야구 대격돌

준 기자 = 올해 KBO리그 최고의 투수와 최고의 타자가 가을야구 무대에서 진검 승부를 벌인다.

'극강의 에이스' 코디 폰세(한화 이글스)와 홈런왕 르빈 디아즈(삼성 라이온즈)가 플레이오프(PO·5전3선승제) 무대에서 서로에게 칼날을 겨룬다.

정규시즌 2위 한화와 4위 삼성은 17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2025 신한 솔뱅크 KBO 포스트시즌 PO 1차전을 치른다.

한화는 시즌 막판까지 정규시즌 1위를 노리다 결국 2위가 되면서 PO로 직행했다. 정규시즌 4위로 와일드카드(WC) 결정전에 나서 5위 NC 다이노스를 꺾은 삼성은 준플레이오프(준PO·5전3선승제)에서 3위 SSG 랜더스를 3승 1패로 물리치고 PO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다.

올 시즌 팀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른 한화와 팀 홈런 1위를 차지한 삼성의 대결은 방패와 창 대결로 불린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정

### '17승·252탈삼진' 폰세, 외국인 투수 최초 4관왕 등극 디아즈, 외인 최초 50홈런·단일 시즌 최다 타점 신기록

규시즌 MVP를 놓고 경쟁하는 폰세와 디아즈의 정면 승부다.

폰세는 올해 리그를 지배하는 활약을 펼쳤다. 29경기에 나서 17승 1패 평균자책점 1.89, 탈삼진 252개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다승과 평균자책점, 탈삼진 뿐 아니라 승률에서도 0.944로 1위에 오른 폰세는 외국인 투수 최초로 4관왕에 등극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공식 시상 기준으로 4관왕에 오른 투수는 1999년 빙그레 이글스의 구대성, 2011년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에 이어 폰세가 역대 3번째다.

폰세는 규정이닝을 소화한 투수로는 2010년 한화 류현진(1.82)이 이후 15년 만에 1점대 평균자책점을 작성했다.

그는 2021년 두산 베어스 아리엘 미란

다가 작성한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225개) 기록을 가볍게 넘어섰다.

개막 이후 27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 번도 패전을 기록하지 않고 17승을 거뒀다. 종전 14연승(2003년 현대 유니콘스 정민태·2017년 KIA 타이거즈 헥터 노에시)을 넘어 선발 개막 연승 신기록을 수립했다.

폰세는 5월17일 대전 SSG전에서는 8이닝 동안 18개의 삼진을 속아내 정규이닝(9이닝) 기준 한 경기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선동열이 13이닝을 던지면서 작성한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에도 타이틀을 이루는 것이다.

디아즈가 정규시즌에 세운 기록도 눈부시기는 마찬가지다. KBO리그 최초로 단일 시즌 50홈런·150타점을 달성했다.

시즌 내내 꾸준한 홈런 페이스를 자랑

한 디아즈는 외국인 타자로는 최초로 단일 시즌 50홈런 고지를 밟았다. 2015년 삼성 야마이코 나바호가 세운 48홈런을 넘어 외국인 타자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웠다.

단일 시즌 50홈런은 디아즈에 앞서 이승엽(1999년 54개·2003년 56개), 심정수(2003년 53개), 박병호(2014년 52개·2015년 53개)만이 달성한 기록이었다.

또 158개의 타점을 수확해 단일 시즌 최다 타점 신기록을 세웠다. 2015년 박병호가 작성한 146타점을 경신했다. 디아즈는 홈런, 타점, 장타율(0.644) 부문 타이틀을 휩쓸며 타격 3관왕에 등극했다.

올 시즌 디아즈의 정규시즌 성적은 타율 0.314, 50홈런 158타점 93득점에 OPS(출루율+장타율) 1.025다.

정규시즌 중 폰세와 디아즈는 세 차례 투타 대결을 했다. 폰세는 디아즈에 단타 1개만 허용했다. 홈런은 내주지 않았다.

폰세는 9월20일 KT 위즈전에서 5이닝

4실점하고 시즌 첫 패전을 떠안는 등 시즌 막판 위력이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1일 SSG를 상대로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을 치른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체력을 비축한 폰세가 포스트시즌 무대에서 얼마나 긴장감을 이겨내고 투구하는지가 관심이 될 전망이다.

폰세는 PO 1차전 선발로서 선봉장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WC 결정전, 준PO를 거친 디아즈는 현재 기세가 최고조다.

NC와의 WC 결정 1~2차전에서 7타수 무안타로 침묵한 디아즈는 SSG와의 준PO 1차전에서 3안타를 날리며 타격감 회복 기미를 보였다.

준PO 2차전에서 4타수 1안타, 3차전에서 3타수 무안타로 주춤했던 디아즈는 4차전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쏘아올렸다. 2-2로 맞선 8회말 2사 1루에서 결승 투런 포를 작렬해 팀을 PO 진출로 이끌었다.

/뉴시스

### 한국 야구, 월드컵 파이널 출전 강재영·안산·김중호 출격

세계 야구의 왕중왕을 가리는 '2025 현대 야구 월드컵 파이널'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난징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한국 대표 선수들이 도전을 내밀었다.

이번 대회에는 올해 열린 네 차례의 월드컵 대회에서 남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이 출전하며, 여기에 월드컵 개인전 성적외로만 산정되는 랭킹 포인트 상위 3명과 개최국 우수 선수 1명이 더해져 총 8명이 출전한다.

동일 국가에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최대 2명으로 제한된다.

지난 9월 광주에서 열린 2025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세계 최강의 저력을 입증한 한국 대표팀에서는 리커브 여자부의 강재영(현대모비스)과 안산(광주은행), 그리고 컴파운드 남자부의 김중호(현대제철)가 출전한다.

강재영은 지난 7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25 현대 야구 월드컵 4차 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이번 파이널 출전권을 확보했다.

강재영은 지난 2019년 모스크바 대회와 2023년 에르모시오 대회에 이어 세 번째 월드컵 파이널 우승에 도전한다.

안산은 2차 대회 5위, 3차 대회 2위, 4차 대회 6위 등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며 2025년 월드컵 랭킹 포인트 4위에 올랐으며, 지난 2022년 트라스칼라 대회 이후 3년 만에 파이널 무대에 복귀한 안산은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한다. 컴파운드 남자부의 김중호는 2차 대회 4위를 비롯해 시즌 내내 고른 활약을 보이며 랭킹 포인트 7위로 파이널 진출권을 획득했다.

올 시즌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김중호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 첫 월드컵 파이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한편, 리커브 남자부의 김우진(청주시청)과 김재덕(예천군청), 여자부의 임시현(한국체대)과 이가현(대전시체육회), 컴파운드 여자부의 한승연(한국체대) 등은 출전권을 획득했으나, 출전을 포기해 이번 대회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뉴시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10월 19일 도양읍 녹동항 일원에서 '제7회 고흥군수배 녹동항 전국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흥군과 고흥군의회가 주최하고 녹동항후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녹동항과 소록도 인근 방파제 등 3개소에서 감성돔을 대상어종으로 진행된다.

이번 낚시대회는 참가비 10만 원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

### 고흥군, 제7회 고흥군수배 녹동항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

#### 전국의 강태공들이여! 감성돔 낚시의 메카 녹동항으로!

가 신정은 오는 17일까지 온라인(네이버 '녹동항 전국바다낚시대회' 검색)을 통해 선착순 150명을 대상으로 사전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접수 미달 시 당일 현장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다.

낚시 자리는 대회 당일 추첨을 통해 정해지며, 순위는 대상 어종인 감성돔(25cm 이상)을 전장을 계속 후 크기가 큰 순서로 결정된다.

우승자에게는 시상금 700만 원, 2위 200만 원, 3위 100만 원이 지급되며, 최

장거리상·최고령상·최연소상·여성위너상 등 특별상도 시상할 계획이다.

군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의 낚시인과 관광객들에게 '감성돔 낚시의 메카'이자 깨끗하고 아름다운 절경을 가진 고흥 바다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매년 찾고 싶은 바다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 마법의 국향랜드로 초대합니다

# 국향 HAM PYEONG 대전

###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10.24.(금) - 11.09.(일)  
함평엑스포공원